■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하나님　제목 : 창조의 과학적 증거들　성경: 시편 19편1-8절

1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2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3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4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5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6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여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7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8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시19:1-8)

리 스트로벨의 탐구에 관한 이야기.(예일대 법학석사. 시카고 트리뷴지 법률 편집장)

1953년 스탠리 밀러의 실험. 매탄, 암모니아, 수소, 수증기 + 번개 = 아미노산이 발견됨.

그러나 1960년에 초기 지구의 화학적 구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바뀜. 초기 지구의 환경은 아마도 화산폭발을 통해서 나오는 물질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됨. 즉 이산화탄소, 질소, 수증기의 조합.

스탠리 밀러는 다시 이들과 번개를 결합 시켰지만 아미노산은 발견되지 않음.

엄청난 양의 아미노산의 생성 되었다고 해도 그것이 생명현상으로 연결되려면 한참 멀다.

살균된 실험관 안에 적당한 양의 소금, 산성과 염기성의 발란스, 온도를 적당하게 맞춘 물을 넣고 살아있는 유기체를 넣는다. 살아있기에 완벽한 환경이다. 그런데 살균된 바늘로 이 유기체를 찌른다면? 실험관 안에는 유기체로부터 나온 온갖 종류의 분자들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아미노산 수준이 아닌 생명의 구성원인 분자들로 말이다. 그러나 그 실험관 안의 분자들은 스스로 다시 모여서 생명체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런 실험을 수만번, 수많은 시간동안을 지켜 보아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별별 많은 가설들이 있지만, 결코 무생물에서 생물체가 생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지 못한다. 생명이 없는 화학물질이 스스로 배열해서 가장 간단한 단세포 생물도 결코 만들지 못한다.

다윈의 생명의 나무는 어떻게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공통된 조상으로부터 생명체가 진화되었는지를 그려 놓았다. 그러나 결정적 증거는 하나도 없다. 진화를 증거하는 화석들이 하나도 없다.

캄브리아기 대폭발.

다윈이 설명하는 생명나무의 증거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 대략 5억 3천만년 전의 캄브리아기 화석에는 사실상 오늘날 대부분의 동물문의 신체 특성에 대한 화석이 한꺼번에 다 나와 있다.

다윈이 예상했던 점진적이거나 천천히 나타난게 아니라 갑자기 한꺼번에 전부 나타난 것이다.

지구상의 생명체의 역사가 24시간이라고 가정한다면, 일반적으로 생명체의 탄생을 38억년, 혹인 40억년전이라고 가정할 때 6시에 아주 간단한 세포 유기체가 나타났다고 본다. 이처럼 간단한 세포 유기체가 저녁 9시까지 아무런 변화도 없이 있다가 약 2분동안 모든 생물체가 동시에 나타났고, 그들 중 대부분은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다. 캄브리아기 대폭발.

미국 600명의 과학자들은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이 생명의 다양성을

설명하는데 부정적이다'는 내용의 '다윈주의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다윈주의는 엄청난 맹신을 필요로하고 그것을 믿을만한 타당한 이유는 없다.

우주학적 증거

1915년 우주학계는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이론을 통해 그동안 우주는 불변하다는 생각에 도전장을 받았다.

우주는 정적이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팽창하거나 수축한다는 이론이다.

1929년 이론적인 예측이 실측되었다.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이 이것을 발견한 것이다.

우리 은하계 너머의 은하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관측.

은하계의 거리가 멀수록 더 빨리 멀어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우주는 시작점이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그래서 빅뱅이론이 생겨났고, 성경의 창조론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게 된 것이다.

우주는 시간의 제약을 받는 유한성을 가지고 있다. 허블의 발견을 필두로 수많은 다른 증거들은 우주가 갑자기 한 순간에 폭발하듯이 생겨났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결론짓게 만들었다.

우주에 시작점이 있다면, 우주를 시작하게 한 원인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그 원인은 분명히 시공을 초월한 4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물리적이지도 않고 물질적이지도 않는 어떤 존재에 의해서 우주는 무로부터 창조되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과학적인 설명이 되었다.

시간과 에너지와 빛이 갑자기 생성되어야만 우주의 존재가 과학적으로 설명된다는 뜻이다.

우리가 과학적인 증거들을 편견없이 따라간다면, 그 증거들이 가리키는 그것은 너무도 분명하게, 강력하게, 그리고 설득력있게 창조주를 가리킨다.

물리학적 증거

시간의 시작부터 우주의 모든 물질은 정밀하게 조화를 이룬 법칙과 상수에 의해 통제되었다.

우주의 물리법칙은 생명의 발생을 위해서 면도날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을 정도의 정밀함으로 정확하고 정밀하다.

4가지의 힘. 중력, 전자기력, 핵력, 약력

핵력:핵력은 원자의 핵을 형성하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끌어당기는 힘이다. 이 힘은 중력보다 훨씬 강력하다. 핵력이 없다면 원자핵의 양성자와 중성자를 끌어 모을 수 없게 되고 그렇다면 온 우주는 흩어지고 말 것이다. (핵력이 지금보다 10의 31승분의 1만큼만 약해도 우주에는 수소밖에 남지 않게 된다. 조금만 강해도 무거운 원소만 남고 수소 같은 가벼운 원소는 사라진다. 약력도 마찬가지-핵분열에 관여하는 힘, 중성자=양성자+전자+에너지)

또한 전자기력(+,-가 존재하는 힘)이 없다면 화학물질을 묶어주지 못하고 빛이 생길 수 없다.

즉, 생명의 발생을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원리가 정확해야 한다.

그 원리 중 하나라도 없어지면 생명은 없는 것이다. 생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원리들이 적어도 30가지 이상이 동시에 갖추어져야 한다. 이런 원리들이 너무 정밀하게 조정되어 있어서 미세조정이라고 한다.

중력:(인력으로만 존재) 1인치 눈금의 자가 140억광년 우주 전체에 길게 놓여져 있고, 중력의 위치는 가장 적절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만약 이 위치가 1인치라도 움직이면 콩보다 더 큰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중력의 위치만 해도 엄청난 정밀도로 미세조정되어 있는 셈이다.

우주상수 : 우주공간의 팽창속도. 팽창속도가 빠르면 우주는 흩어져 버릴 것이다. 이 우주상수는 10의 53승의 1의 정밀도로 조정되어 있다.

우주의 팽창률이 현재보다 1조 분의 1만큼만 더 빨랐더라면 우주 내의 모든 물질은 결국 산산이 흩어지고 말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또 반대로 1조 분의 1만큼만 늦었더라면 우주는 존재하고부터 10억년 정도면 중력 때문에 붕괴하고 말았을 것이다.
결국 이 두가지 미세조정만으로도 10의 80승분의 1의 정확성이 된다.

이런 미세조정이 특히 생명체를 위해서는 30여가지나 존재한다. 학자들 중에는 이런 물리학적 조건들을 우연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다. 마치 우리들을 존재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적으로 이런 환경들을 조절해 놓은 누군가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결론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진리이다.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가정하고 연구하였는데 마치 짜내듯이 만들어낸 이론이 다중우주론이다. 즉 수많은 다른 물리법칙과 우주상수들이 존재하는 수없이 많은 우주가 있다는 가설이다. 오늘의 우주는 수 많은 상수들의 조합으로 우연히 생성되었다는 가설이다. 아무것도 증명되진 않았다. 우주는 스스로 수억 수조 수경 수해 수자 수양 수구 수간 수정개의 우주를 만들다 사라졌다가를 반복하다가 오늘의 우주를 우연히 만든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 그 많은 실험을 행했다는 말인가?
다중 우주이론은 당연한 결론을 부정하기 위한 처절한 시도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결론은 지적이며 절대적이며 전능한 존재가 복잡한 생명체를 위해 우주를 미세조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당연히 이 존재는 시공을 초월한 존재여야만 한다.

또 놀랍게도 지구처럼 생명체의 존재가 가능한 조건의 다른 행성이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조사한 결과 은하계 내에서 지구 외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은 10의 15승 분의 1이다. (혹은 1조의 1000배)
우리 은하계 내에는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또 지구는 지구가 속해있는 은하계의 중심으로부터 수백만 광년이나 떨어진 변방에 위치해 있어서 비교적 천체의 관측이 용이하다. (즉 우리 은하 안에서 우리 은하를 볼 수 있는 거리에 있다.) 우리은하와 더 멀리에 있는 다른 은하들을 관측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이다. 즉, 별들을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지구가 존재하고 있다. 이미 위치적으로 지구는 과학을 연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는 점이다. 인류가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셨다. 지구는 과학을 연구하기에 아주 적합한 곳에 있다.

생물학적 기계로서의 증거
다윈은 세포가 복잡한지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과학의 발달로 하나의 세포는 그 안에 우주가 있다고 할 정도로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주복잡한 분자기계가 있다. 세포마다 30억개의 DNA가 있고, 이 DNA가 세포를 유지하는 분자기계를 제작하는 기계이다. 간단한 단세포동물의 편모운동을 위한 편모 프로펠러도 40개의 분자기계들의 조립으로 이루어졌고, 전진과 후진이 가능하다.

문제는 다윈은 지금 생각하면 너무 엉뚱하고 단순하고 무식한 상황에서 가설을 세웠지만, 오늘날 진화론자들이 일구어 낸 과학적 성과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물론 오늘의 진화론자들은 대부분 다윈의 이론을 믿지 않는다. 다만 그 이론들을 끊임없이 발전시켰다.

일부 독선적인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우주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전도하면서도 사실은 과학적인 관점에서 진리를 찾는것에서는 엉뚱하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아마도 축구장에서 야구를 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즉, 과학적인 규칙이 있고 신학적인 규칙이 있는데, 진화론자들은 대부분 과학적인 규칙으로 진리를 탐구한다. 그런데 일부 기독교인들은 신학적인 규칙으로 진화론을 탐구하려고 한다. 물론 진화론자들 가운데도 기독교인들이 있다. 진화론자들이라고 해서 과학을 우기는데 사용하는 자들은 아니다. 과학이란 증거와 실험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다. 얼마든지 창조론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도 그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그는 유태인이었기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다. 그는 연구한 결론으로서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할 수 없다고 기록하였다. 물론 과학저널에 그렇게 기록한 것은 아니다. 왜냐면 과학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는 증명될 수 없는 4차원적인 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실험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가설할 수는 없다. 그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계시를 받거나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발견을 하거나 발명을 하거나 새로운 공식을 발표할 수는 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계시로 그렇게 하였다고 과학저널에 기록할 수는 없다.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다. 하나님을 무시해서도 아니다. 과학이기 때문에 3차원적인 실험으로 증명되지 않는 존재를 언급할 수 없기 때문일 뿐이다.

다만 창조론을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논문을 발표하면 된다. 처음에는 다윈처럼 엉뚱할 수 있다. 그러나 과학의 장점이 무엇인가? 얼마든지 다시 연구할 수 있고, 혼자가 아니라 수만명이 동시에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이 과학의 장점이다. 수만명이 똑같은 실험을 할 수 있고, 그 결과가 똑같다면 믿지 않을 과학자는 없다.

과학은 신앙의 적이 아니다. 오히려 진정한 과학이야말로 신앙의 친구이다. 다만 규칙이 다르다. 과학의 규칙과 신학의 규칙은 축구와 야구가 다르듯이 다르다.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론과 진화론으로 나뉘어 싸우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창조론은 하나님의 편이고, 진화론은 마귀의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 창조론자들의 잘못은 과학적 규칙을 어기는 것, 연구하기 보다는 진화론의 오류를 발견하는데 더 시간을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과학자들이 아닌 신학자들이 과학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는 점이 부적절하다는 점이다.

진화론자들 중에서도 창조론을 무조건 비과학적인 생각이라고 일축하는 자들은 진정한 학자의 태도는 아니라고 본다. 일부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창조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또한 과학은 진리를 탐구하는 유용한 도구일 뿐, 결코 오류가 없을 수는 없고, 과학 또한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설을 세워놓고 그 가설을 실험을 통해서 입증할 뿐이다. 그러므로 그 가설은 결코 아직 완성된 과학은 아니며, 입증 또한 이후에 있을 새로운 가설과 입증에 의해서 번복되는 것이 과학의 역사일 뿐이다. 그러므로 과학이 신학보다 더 우월한 학문으로 여기는 오만함도 부적절하다. 모두는 진리앞에 겸손해야 할 필요가 있고, 서로 협력해야만 한다.

아인슈타인의 업적을 통해서도 잘 알려졌듯이 진실한 태도가 중요하고, 결국은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창조론도 과학적으로 탐구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 7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
> 8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7:7-8)

이 말씀은 과학자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본다.

과학은 결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결코 비과학적인

분도 아니시다. 그리고 우리의 과학적 노력을 가장 원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시다. 분명한 것은 성령운동이 활발한 국가에 과학이 왕성하게 발전하였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열심히 과학을 통한 창조론을 발전시켜야 할 사명이 있다. 과학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자!

아멘.

<찬양예배>

주제 : 제목 : 말씀 :